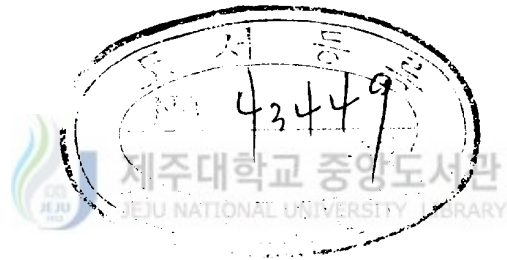


碩士學位 請求論文

禁煙教育프로그램이 吸煙行動 變化에 미치는 效果

- 實業界 高校生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高 明 奎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專攻

任 素 妍

1996年 2月

禁煙教育 프로그램이 吸煙行動 變化에 미치는 效果

- 實業界 高校生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高 明 奎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5年 11 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專攻

提出者 任 素 妍



任素妍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5年 12月 日

審 查 委 員 長

印

審 查 委 員

印

審 查 委 員

印

< 抄 錄 >

禁煙教育 프로그램이 吸煙行動 變化에 미치는 效果

- 實業界 高校生을 中心으로 -

任 素 妍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專攻

指導教授 高 明 奎

흡연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흡연청소년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대처방안으로서 금연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실업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흡연폐해에 대한 지식수준과 흡연행위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흡연행동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누어 검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제주시내 모 실업계 남자고등학교 흡연학생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중 임의로 25명씩을 무선배정하여 교육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하였다. 교육집단은 본 연구자가 구성한 프로그램을 매주 2회 110분씩 총 7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비교집단은 사전-사후 검사에만 참여하였다.

측정도구는 현재 흡연행동과 흡연폐해에 대한 지식도, 흡연행위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로서, 지연옥(1988)이 제작한 것을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PC+를 이용하여 교육집단과 비교집단간 사전검사, 두 집단의 집단내 사전-사후검사, 두 집단간 사후검사에 대해서 t 검증을 실시하였다. t 검증결과 교육집단의 사전-사후검사와 두집단간 사후검사에서 흡연행동과 흡연폐해에 대한 지식 및 흡연행위에 대한 태도 등 모든 측면에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일정기간 동안의 금연교육 프로그램 실시는 실업계 고교생의 하루 흡연량 감소와 금연이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연교육 프로그램은 실업계 고교생의 흡연행동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2) 일정기간 금연교육을 실시하면 실업계 고교생의 흡연폐해에 대한 지식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3) 일정기간 금연교육을 실시한 후 실업계 고교생의 흡연행위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금연교육 프로그램은 흡연행위에 대한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볼 때 금연교육 프로그램은 실업계 고교생의 흡연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체계적인 금연교육을 실시한다면, 청소년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하여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 본 논문은 1995년 11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목 차 >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제한점	5
II. 이론적 배경.....	6
1. 청소년 흡연실태.....	6
2. 청소년 흡연습관 형성과정.....	10
3.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2
4. 선행연구 고찰.....	16
III. 연구문제 및 가설.....	24
IV. 연구방법 및 절차.....	25
1. 연구대상.....	25
2. 연구절차.....	25
3. 연구방법.....	26
V. 연구결과 및 해석.....	29
1. 연구결과.....	29
2. 결과의 해석.....	33
VI. 요약 및 결론.....	37
1. 요약.....	37
2. 결 론.....	39
3. 제 언.....	40
<참고문헌>.....	41
<Abstract>.....	47
<부록>.....	49

< 표 목 차 >

< 표Ⅱ-1 > 흡연행동 변화를 위한 연구의 개념틀.....	23
< 표Ⅳ-1 > 금연교육 프로그램 내용.....	26
< 표Ⅳ-2 > 사전-사후검사 실험설계.....	28
< 표Ⅴ-1 > 교육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검사 비교.....	29
< 표Ⅴ-2 > 비교집단의 사전-사후검사 비교.....	30
< 표Ⅴ-3 > 교육집단의 사전-사후검사 비교.....	31
< 표Ⅴ-4 > 교육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검사 비교.....	32
< 표Ⅴ-5 > 사후 금연이행자 수 비교.....	33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청소년들의 문제행동과 비행이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행위는 비단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건강상 유해를 줄뿐만 아니라, 유교적 전통을 뿌리로 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 규범적 측면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행행동으로 고려되고 있다.

청소년의 흡연행위에 대한 규제는 제도적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미성년자 보호법(1979. 12. 개정)에 의하면 미성년자(법률상 성년이 되지 않은 자, 즉 만 20세 미만을 의미함)는 껍연올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조(친권자의 의무)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이를 감독하는 자가 미성자의 껍연행위를 알았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제4조(영업자의 의무)는 연초판매자 및 그 고용인은 미성년자에게 그가 껍용할 것을 알고 담배를 판매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벌칙으로는 제6조 만약 미성년자에게 그가 껍용할 것을 알고 담배를 판매하거나 공여한 연초판매자 및 그 고용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주왕기,1992).

이와 같은 청소년의 흡연문제는 보건의료적인 측면과 청소년의 비행, 탈선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역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담배는 많이 피우고, 오랜 기간 피우면, 그리고 일찍 피우면 피울수록 건강상의 피해는 그만큼 커진다. 특히 청소년기는 아직 신체적 발육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모든 세포와 조직이 약하여 담배연기에 노출될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하다. 또한 18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비흡연자보다 15년 정도 수명이 단축된다는 보고가 있으며, 미국의무총감 1989년도 보고서만 보더라도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비흡연자의 5.2배인데 비하여 15세 이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경우에는 18.7배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박명운,1992).

이 외에도 흡연은 청소년들의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흡연은 사방의 감시를 피해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성격을 냉소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적극적인 인생관보다는 반항적이고 냉소적인 성격을 조장하는 등 의식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강성만 외,1995).

또한 청소년기 흡연의 용납은 사회규범에서 첫일탈행위로 용인하는 것이므로 다음 단계의 청소년 범죄로 연결될 수도 있다. 대개 청소년 비행의 첫걸음은 흡연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 끼리는 자연스럽게 또래집단이 형성되고, 이는 술이나 다른 약물에까지 탐닉하게 되는 동기가 되어 자제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각종 비행과 연결될 수도 있다.

Kandel은 청소년의 약물사용은 단계적 양상을 나타낸다는 단계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약물사용은 <맥주와 과실주>→<담배와 독한술>→<대마초>→<불법적 약물:향정신성의약품 포함>과 같은 4단계로 진행된다고 보았다(허철수,1993). 즉 담

배와 술은 심각한 약물남용의 기초단계가 되는 것이다.

또한 흡연과 청소년 비행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들에서 보면, 흡연은 흡연자체의 문제성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불량행위와의 복합적인 상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으로 보고하고 있다(고정자 외,1992).

이러한 청소년의 흡연동기나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요인이 있을수 있는데, 여러 연구들에서 보면 부모나 형제자매, 친구의 흡연여부, 학년수준, 학업성취정도, 욕구좌절, 긴장완화, 부모나 교사와 같은 권위자에 대한 반항, 어른들에 대한 모방심리, 동료에의 동조성 등 사회적 심리적 요인 때문에 일어나는 복합적인 사회적 행위(social behavior)이며 사회적 환경과 사회적 경험의 결과임을 시사하고 있다(이조웅,1986).

따라서 Evans(1983)는 학생들로 하여금 담배를 피우게 되는 사회적 영향에 몰들기 쉬운 기간인 중·고등학교 시기에 학생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다면 성급한 흡연행동으로 부터 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Pulkkinen(1983)도 14세에 흡연을 하지 않았던 학생들 중 20세에 흡연자가 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약리작용보다는 사회심리적 이유로 담배를 피우게 되는데, 담배소비가 증가할수록 흡연에 대한 신체적 의존성이 높아지므로 끊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으로 담배에 접하게 되는 시기가 어릴수록 습관성 흡연자가 되기 쉬우므로, 흡연습관을 버리는데는 흡연기간이 짧을수록, 흡연량이 적을수록 유리하다. 그러므로 금연교육은 청소년 시기에 이루어져야 효율적일 수 있으며,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청소년 흡

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청소년 흡연행위는 근래에 와서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그 문제점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현장을 보면 흡연행위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뚜렷한 대책이나 지도방안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청소년의 흡연실태에서도 보면 남중생의 흡연경험을 20.93%이고 남자고교생의 흡연경험을 38.25%로 나타난 반면에, 금연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 중학생은 6.8%, 고교생은 21.1%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 흡연문제는 선행연구에 의한 결과에서 볼 때, ① 청소년 흡연을 증가와 조기흡연 추세, ② 습관성 흡연자의 증가, ③ 학년증가에 따른 습관성 흡연화, ④ 금연교육 실시의 미흡 등으로 그 심각성을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학교 및 지역사회 여러 기관이 주축로 해서 흡연의 폐해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청소년 흡연행위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급히 개발, 보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업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흡연폐해에 대한 지식주준과 흡연행위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흡연행위 변화에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실업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선행연구 이영숙(1982), 심은희(1988), 박종태(1994)나 배오진(1995) 등의 연구결과 인문계보다는 실업계 고교생들의 경우 더 높은 흡연경험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다 더 시급하게 금연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

기 때문이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 1) 본 연구에서는 편의를 위해서 실험집단을 교육집단으로, 통제집단을 비교집단으로 명시하였다.
- 2) 본 금연교육 프로그램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실업계 남자고교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들에게 효과가 있을지라는 점에서는 제한점이 있다.
- 3) 본 금연교육 프로그램 효과검증을 위한 사전·사후검사는 선행 연구를 참고로 하였으며 표준화되지 않은 것이다.
- 4) 추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도 본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가 요구된다.
- 5)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 특성 및 제한경적 요소에 따른 변인들의 영향에 대한 검증은 고려되지 않았다.

II.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우선 청소년의 흡연행동에 대한 고찰로서 청소년 흡연실태와 청소년 흡연습관 형성과정 및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흡연행동변화를 위한 연구의 개념틀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 흡연실태

흡연의 유해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흡연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흡연인구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흡연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체육청소년부 1992년도 조사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의 유해화학물질 남용경험도에서 흡연이 29.4%(남 55.1%,여 3.7%)이고, 중학생의 경우는 18.2%(남 28.1%,여 8.3%)로 음주율과 마찬가지로 높은 경험율을 보이고 있다(주왕기,1992).

전국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일 외(1988)의 보고에서 흡연율은 3%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지인순(1989)의 연구에서는 흡연경험이 있는 남자중학생이 2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일순 교수팀이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남자중학생의 경우 흡연율이 1988년 1.8%에서 1989에는 1.5%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1992년에는 3.2%로 증가하여 1988년에

비해서 1.4%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남자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흡연율이 1988년 23.9%에서 89년 32.0%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91년에는 32.4%로 3년전에 비해 8.5%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박명윤,1993).

또한 고막래(1990)는 남자고교생 중 현재 흡연자는 25.3%, 흡연 경험자는 29.7%로서 흡연경험율이 55%에 이르고 있다고 하였고, 전국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율을 학년별로 조사한 서일 외(1988)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9.5%, 2학년 19.1%, 3학년 40.4%가 현재 흡연하고 있고,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을 포함한 고등학교 3학년의 흡연 경험율은 67.0%에 이르러 담배를 전혀 피워본 적이 없는 학생은 33%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혜경(1990)의 보고에서는 70.6%가 흡연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흥경(1990)의 보고에서는 흡연경험율이 59.7%로 나타났다.

한국 금연운동협의회에 의하면 고등학생 평균흡연율이 32%로, 88년의 23.9% 보다 8.1% 증가하였고, 1991년도 조일무 교수팀의 연구에서는 일본 고3학생의 흡연율은 26.2%인 반면 한국 고3학생의 흡연율은 44.8%로 나타났으며, 88년 23.9%, 89년 32.9%, 91년 32.4%로 날로 증가추세에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고정자 외,1992).

1991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전국의 13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 중에서 흡연경험자는 26.8%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연구에서 보면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는 시기에 흡연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고2무렵에 최고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최윤진 외,1993).

이와 관련하여 고등학생 흡연자의 최초 흡연시기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이영숙(1982)과 이해경(1990)은 중학교 3학년 때가 가장 많고, 이승환(1988)은 고등학교 시기가, 고막래(1990)는 중학교 시기가 가장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흡연경험 청소년들 중 거의 매일 담배를 피우는 비율이 53.5%로 과반수를 넘고 한주일에 1-2회 정도 흡연하는 청소년은 25.5%로 나타나고 있어, 습관성 흡연자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최윤진 외,1993).

또한 서울기독 병원에서 서울시내 남녀 교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93년도 통계수치에 따르면 남학생의 38.7%, 여학생의 12%가 습관적인 흡연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강성만 외,1995), 전교조 경북지부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남자 고등학생의 39.5%가 매일(22.8%) 또는 가끔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이들의 41.3%는 하루 반갑이상을 피우고 있다(강성만 외,1995).

한국약물남용연구소의 1992년 조사에서 보면 특히 고등학교 3학년생의 흡연은 심각한데, 남학생의 56.3%가 담배를 피운적이 있는데 44.1%가 상습흡연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4.3%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강성만 외,1995) 흡연경험 청소년들 중 대부분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습관성 흡연자인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별 흡연율에 대한 연구에서 보면 주간 고등학교보다는 야간 고등학교에서 흡연율이 높았고,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흡연율이 유의하게 높았다(이영숙,1982; 심은희,1988). 충북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박종태(1994)의 연구에서도 보면, 인문

계의 흡연경험율은 14.54%인데 비해서 실업계는 20.18%로 실업계에
서 더 높은 경험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배
오진(1995)의 연구결과를 보면, 인문계 고교생의 흡연경험율은
29.05%인데 비해서 실업계는 43.31%로 나타나 아주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다.

한편 금연교육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사전연구를 목적으로 제주도
전지역 중·고등학교의 흡연실태를 조사한 결과 남중생의 흡연경험율
은 20.93%, 남자고교생의 흡연경험율은 38.25%로 나타나고 있다. 하
지만 금연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중학생의 경우
받아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6.8%이고 고교생의 경우 받아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21.1%로 나타나고 있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연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결론적으로 청소년 흡연문
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 흡연율이 증가하고 흡연을 시작하는 나이가 빨라지는
추세이고(박명윤,1992),

둘째, 흡연경험 청소년들 중 거의 과반수가 습관성 흡연자이며,

셋째, 호기심에서 비롯된 흡연경험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습관성 흡
연으로 굳어지고 있다.

넷째, 청소년 흡연행동 개선을 위한 금연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청소년 흡연습관 형성과정

청소년의 흡연습관 형성과정은 관점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Wilford는 약물남용의 진행과정을 5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김형태,1990),

- 1) 약물을 복용하고 싶은 호기심이 발동하고,
- 2) 약물복용으로 기분의 변화를 느끼고,
- 3) 다시 기분의 양양을 얻기위해 약물을 찾게 되고,
- 4) 약물에 의해서 얻은 쾌감을 유지하기에 집착하게 되며,
- 5) 다시 복용함으로써 좋은 기분을 유지하게 되는 단계를 거치면서 습관화된다고 보고있다.

Winkelstein(1992) 등은 흡연자가 되는 과정을 4단계로 설명했는데, 첫째는 준비 및 예견단계이며, 둘째는 첫번째 담배가 시도되는 시작단계, 셋째는 일주일에 한번이하 흡연하는 단계, 넷째는 습관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보았다.

청소년 대화의 광장은 청소년 흡연행동에 관한 연구보고(박성수 외,1993)에서 청소년들의 흡연습관 형성과정을 대략적으로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 제 1 단계 흡연충동단계 : 흡연충동을 경험하는 시기인데, 청소년들은 호기심, 도전심, 반항심, 동조성, 스트레스 등의 요인들이 서로 어우러져 청소년들의 흡연충동을 자극하고 촉진한다.

2) 제 2 단계 첫흡연경험단계 : 청소년의 첫흡연경험은 흡연충동과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들은 흡연충동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느낀 후에 우연한 기회에 첫흡연을 경험하게 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여전히 청소년이 흡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어른의 눈을 피할 수 있거나 혹은 어른의 권위를 무시할 수 있을 때 흡연을 하게 된다. 즉 동료들과 어울릴 때 혹은 어른이 없이 혼자 있을 때 그들의 흡연충동은 행동화되어 진다.

3) 제 3 단계 흡연경험단계 : 첫흡연과 유사한 상황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한번 흡연을 해본 청소년들은 담배가 몸에 특별히 맞지 않는 경우나 부모의 감시가 아주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배를 그냥 피우게 된다고 한다. 처음에는 한두대를 피우기 시작하여 점차 그 양이 많아진다. 이 단계 역시 주변친구의 영향이 크고, 생활양식에 의한 스트레스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 시기의 흡연은 대개는 담배가 있을 때만 피우고 일부러 구입하지 않으며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영향을 느끼지 않는다. 즉 니코틴 금단현상을 경험하지는 않는다.

4) 제 4 단계 흡연습관단계 : 담배를 피우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니코틴 중독으로 말미암아 담배를 1-2시간 피우지 않으면 몸이 나른하고 집중이 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흡연을 하게 된다. 점차로 담배를 피우지 않고는 생활하기가 힘들고 곤혹스럽게 된다. 지속적인 흡연으로 여러 생활상에 불편이 있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신체증상이 생긴다.

흡연 청소년에 따라서는 4단계를 전형적으로 거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피상적으로 관찰하면 대부분의 청소년에게

있어서 흡연충동과 첫경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좀 더 깊이 탐색해보면 그런 경우라도 대부분이 오랫동안 타인의 흡연장면에 노출이 되어 간헐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흡연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흡연재경험단계와 흡연습관단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에게 흡연재경험단계는 짧게는 6개월 이상 길게는 2-4년 정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는 이런 4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3.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흡연은 사회적, 환경적, 심리적 및 생물학적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과정이다(Haire, et al.,1991). Winkelstein(1992)은 흡연관련 요인이 복합적이라고 하면서 생물학적인 변수로는 니코틴의 약리생리 작용이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요인으로는 친구, 부모, 형제, 대중매체 등에 영향을 받으며, 심리적 요인으로는 흡연의도, 스트레스 증가, 자아존중감 저하, 부적절한 대응기술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 흡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접근관점에 따라서 여러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외재적 요인과 내재적 요인 두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외재적 요인

외재적 요인으로는 흡연을 용납하는 사회적 환경적 요인과 가정환경, 또래집단의 영향 등이 포함된다.

우리사회에서 흡연은 흔히 '남성다움'과 '어른스러움'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성인세계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이 흡연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사회에 보편화된 성인들의 흡연문화는 청소년의 호기심이 분출되는 일종의 사회환경적 요인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최윤진 외,1993).

또한 흡연은 또래집단 사이에서 인정받고자 또는 친구들과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지니기도 하는데, 이는 청소년은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행위로서 흡연을 한다는 Horn(1959)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이와 관련해서 흡연동기에 대한 청소년 대화의 광장 연구 보고서에서 보면 남학생의 경우 친구와 어울리다가와 호기심으로 흡연하는 경우가 각각 48.8%, 31.0%로 가장 컸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호기심으로(43.8%)와 친구와 어울리다가(35.6%)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박성수 외,1993). 또한 고교생들의 주된 흡연동기에 대한 조사연구를 보면 호기심(31.4%)과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29.3%)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서일 외,1988). 따라서 청소년 흡연과 또래집단과의 유대감 형성 간에는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환경적 요인들을 보면, 우선 부모나 형제자매의 흡연이 청소년의 흡연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Spielberger 등(1983)은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담배를 피우는 부모를 가진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으

며, Nolte 등(1983)은 부모의 흡연행위는 자녀의 흡연에 정적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윤영선의 연구에서도 보면 또래집단의 흡연은 물론 형제자매의 흡연행위는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조웅,1986). 또한 심영애(1989)는 가족내의 흡연자가 많을수록 흡연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보았다.

이는 성장과정에서 부모나 주위의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동일시와 모방을 통해서 각자의 가치기준과 행동양식, 사고방식을 습득하게 되는데, 흡연행동과 흡연행위에 대한 태도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의 가정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들에서 보면, 이영숙(1982)은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흡연과 관계되며, 정해용은 부모의 무관심과 부모와의 대화단절이 청소년 흡연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이계은,1992). 민병근 외(1976)의 연구에서는 결손가정의 청소년이 정상가정 청소년보다 1.5배 더 흡연율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1964년도 미국 보건성 보고서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 교육수준은 청소년 흡연율과 반비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종태,1994). 또한 부모님이 서로 화목하게 지낸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에서 흡연경험이 있는 사람은 30%에도 못미치는 반면, 부모님들이 자주 싸운다고 응답한 청소년들 중에서 흡연경험이 있는 사람은 약66%에 달한다고 한다(최윤진 외,1993). 이러한 현상은 가정생활이 원만치 못한 청소년들일수록 흡연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2) 내재적 요인

내재적 요인으로는 불안이나 고민, 고독, 욕구좌절,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요인들이 포함된다.

부모의 과잉기대나 또래집단에서의 경쟁으로 인한 긴장, 학업성적에 대한 압박감, 기성세대와의 대화단절로 인한 소외감 등은 바로 내재적 갈등의 요인이 된다.

Williams 등(1984)은 흡연행위는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보상행위의 한 형태라고 보고 있으며, 장상희는 청소년들의 흡연행위는 낮은 학업성취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이조웅,1986). 심은희(1988)의 연구에서도 보면 학교생활에 불만족하고 학업성적이 나쁠수록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원식, 문선화는 중·고등학교 시절의 갈등이나 욕구좌절이 불만요인이 되어 흡연으로 표출된다고 하였고(박종태,1994), 이희웅은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이 학업부담과 실패감에 대한 긴장, 두려움 등을 흡연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심리적 충동을 느낀다고 보았다.

청소년 대상의 Bonaguro & Boneguro(1987)의 연구에서는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자아존중감, 가정에 대한 존중감, 동료에 대한 존중감이 낮았으며, 스트레스 증상은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음을 보고 하면서 학교보건 교육에서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가족의 강화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Krohn 등(1986)은 청소년 흡연과 사회에 대한 불만이 밀접히 관련된다고 보고있으며, Covey 등(1990)은 우울한 기분과 스트레스가 흡연에 관련되고, Tuakli 등(1990)은 흡연자는 스트레스, 불안, 지루함 등과 관련된 문제가 많다고 보았다.

또한 김수연은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건강행위를 잘하는데, 흡연자

와 비흡연자 간의 자아개념을 비교한 연구에서 흡연자가 더 낮은 자아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고(박종태,1994), 흡연청소년과 비흡연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수준을 비교한 이유림(1993)의 연구에서 보면 흡연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비남용 청소년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정신분석학적 접근에서는 흡연이나 약물탐닉 행위에 대한 리비도(libido) 고착으로 설명한다. 즉 정신적 발달에 있어서 생식기 전단계인 구순기(oral stage) 또는 보다 이전단계로의 퇴행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이수일,1989).

4. 선행연구 고찰

여기에서는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다음,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연구의 개념들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금연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

대부분의 금연 프로그램들은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혐오적 조건화 등의 행동주의적 학습원리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고, 일부 프로그램들은 필터와 같은 흡연기구를 사용하고 있다(Glasgow & Lichtenstein,1987).

고전적 조건화에 기초를 둔 금연 프로그램들은 담배를 피우는 것이 조건자극에 대해 개가 침을 흘리는 것과 같다고 보고서 일상의 많은 상황들-커피 마시기, 운전하기, 식사하기, 글쓰기, 공부하기 등-

과 흡연간의 연합을 끊어버리려고 한다.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는 욕구는 위와 같은 외적 자극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내적 자극에 의해서도 유발된다. 담배를 피우면 체내의 생리적 과정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인체는 흡연으로 인해 변화된 생리적 과정에 조건화 된다. 만약 담배를 피우지 않아 생리적 과정이 정상으로 되돌아 가면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고 싶어 못견딘다. 이러한 현상을 자율적 조건화라고 하는데, 금연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자율적 조건화 현상을 인식시켜 주어 담배를 끊도록 도와준다(황경열,1990).

조작적 조건화에 기초를 둔 금연 프로그램은 부적강화, 치료계약 등을 사용한다. 부적강화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 긍정적인 강화물을 줌으로써 담배를 끊도록 도와준다(Leventhal & Cleary,1980). 치료계약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액수의 돈을 내도록 한 뒤, 이들이 계약서에서 서약한 대로 이행하면 대부분의 돈을 되돌려 주어서 참여자들이 담배를 끊도록 도와준다.

협오적 조건화에 기초를 둔 금연 프로그램에서는 흡연과 혐오자극을 계속해서 짝지워 제시하면 흡연의 강화가는 줄어들고 따라서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된다고 한다(Davion & Neak,1986; Kendall & Norton-Ford,1982).

행동주의적 접근에 바탕을 둔 기존의 금연 프로그램들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담배를 일시에 끊도록 하는 금연 프로그램은 대체로 하루에 1-2시간씩 5일간 계속해서 실시되나, 차츰 양을 줄여서 끊도록 하는 금연 프로그램은 1주에 한

번, 한번에 1-2시간씩 5주 동안 계속해서 실시된다(황경열,1990).

이 경우 첫째주는 기준선을 정하는 주로서 참여자로 하여금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망과 피운 담배 수를 관찰하고 기록하게 한다. 그리고 참여자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종류의 담배로 바꾸거나 담배갑을 신문지에 사서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도록 하는 과제를 통해서 자동적이고 습관적인 흡연을 줄인다. 둘째 주는 평소에 하루 동안 피우는 평균 담배 수의 50%만 피우게 하고, 그리고 빨리 담배를 피우는 절차를 통해서 담배에 대해 혐오적인 느낌을 갖게 한다(Ganesan,1984). 셋째 주는 담배를 끊도록 하고, 네째, 다섯째 주는 담배를 끊음으로써 얻는 좋은 점을 지지해주고, 참여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경험을 나누어 가지도록 한다.

한편 이러한 행동주의적 접근 외에도 금연 프로그램은 약물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접근들을 기초로 해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먼저 인지적인 면에 중점을 두는 접근이 있다. 이는 약물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모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약물을 사용한다고 보고, 학생들에게 약물과 그 효과에 관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다. 즉 약물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실행되는 대부분의 금연 프로그램들은 보편적으로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해독, 흡연과 각종 질병간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영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인지적인 면에 중점을 둔 접근방법이라 하겠다(주왕기,1992).

심리·사회적인 요소들에 초점이 주어진 접근으로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Evans(1983)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고안된 것으로 사회영향력 접근(social influence approach)으로 약물사용을 장려하

는 영향력에 초점이 주어지며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이 모델을 좀더 발전시켰는데, 또래지도자와 공적인 헌신, 역할연기, 대인관계 강화기술 등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접근들은 금연에 효과를 보였다(최선화,1991).

또 다른 접근은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과 Jessor의 문제행동이론에 근거한 것으로서 개인적, 사회적 기술습득에 중점을 두는 접근 방법이다. Jessor는 문제행동이론에서 흡연, 음주 그리고 마리화나 사용은 모두 사회적으로 학습된 행동이며 합목적적이고, 기능적인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는 개별적이고 사회적인 요소들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한다. 따라서 약물사용이 초래하는 건강에 미치는 좋지 못한 결과에 대한 지식에 초점을 두거나 또는 약물사용 행위와 관련되는 표면적이고 감정적인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는데 초점을 두는 대신 이러한 접근을 흡연, 음주 및 약물사용에 대한 대인관계적 압력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약물사용을 장려하는 압력을 거절하는 기술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최선화,1991; 주왕기,1992). 그래서 일반적인 삶의 기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 내에서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된 기술을 강조해서 가르친다.

하지만 흡연은 아주 복잡한 행동이기 때문에 단일기법에 기초를 둔 금연 프로그램은 별로 효과가 없다(Geisinger,1976). Kottke 등은 39편의 논문을 분석한 meta-analysis를 통해 금연치료의 방법이 단독으로 시행되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적용될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였고, 여러번 반복해서 동기를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장기간의 추적관찰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최종태,1992).

지금까지 개발된 금연방법에는 금연교육, 금연상담, 니코틴 대체요

법을 비롯한 약물요법, 행동요법 및 최면이나 혐오 등의 정신요법 등이 보고되었으며, 이들의 방법이 체계적이고 종합으로 시도될 때 가장 성공적이라는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Lam et al,1987).

Health and Public Policy Committee(1986)에서는 금연을 위한 전략으로 약물요법, 행동요법, 금연상담 및 의사의 본보기(role modeling), 금연교육, 최면요법, 침구요법 등을 제시하고 이중에서도 특히 약물요법, 행동요법, 금연교육, 금연상담 등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서 최종태(1992)는 니코틴패취의 부착(몸의 일부분에 부착하는 경피부 니코틴 투여제제)과 금연교육(슬라이드를 통한 금연강의, 비디오 시청 및 토의), 금연상담(전화 및 내원시 금단증상과 흡연욕구 대처방법, 니코틴패취 부작용 등에 대해 상담), 행동요법(흡연시각, 흡연상황, 흡연에 관한 욕구 등을 파악하여 흡연일기 작성)을 절충한 종합적인 금연치료 방법을 연구했는데, 72.5%의 성공률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지적 접근방법과 행동주의적 기법들을 근거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내용들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구성하였다. 먼저 인지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VTR과 흡연폐해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행동주의에 기초를 둔 금연프로그램은 효과가 크기 때문에 행동주의적 측면에서 흡연관찰 기록지를 작성하여 자신의 흡연행위를 기록하고 관찰, 반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연계약서 작성 및 공언을 통해서 금연결단을 하고, 흡연충동 유발상황 및 금단증상 대처방법에 대한 강의와 토의를 통해서

대처방법을 각자가 목록화하고 직접 실천하게 하였다. 또한 금연행동 강화를 위해서 역할극을 실시하도록 구성하였다.

2) 흡연행위변화를 위한 연구의 개념틀

Bloom은 교육을 통하여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학습의 영역을 지적영역, 정의적 영역, 행동영역이라고 분류하였다(김호권 외,1983). 즉 교육을 통하여 인간의 지식을 변화시키고 지식이 변화되면 태도가 변화되고, 태도가 변화되면 실천을 하게 되기도 하며, 이와 반대로 인간은 실천을 변화시키면 실천의 반복을 통해서 태도가 변화하고 이 태도를 밑받침으로 지식이 변화하기도 한다(김화중,1987). 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해 보면 이 지식-태도-행위 모델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식이란 어떤 대상을 연구하거나 배우거나 또는 실천을 통해서 얻은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말하는데 이는 어떤 문제점, 프로그램, 또는 행위에 관한 대상자의 인지수준을 확인하는데 자주 쓰이고 있다(Schneider,1980). 특히 건강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사실들에 대한 지식은 바람직한 건강행위의 기초가 되는데, 지식의 증가로 행위변화가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연구에서 이 두 변수사이의 긍정적인 관련성을 증명한 바 있다(지연옥,1988).

태도는 학습되는 것이고 행위의 선행경향성을 나타내며 선택적 반응을 유발한다. Rokeach에 의하면 태도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관한 비교적 지속적인 신념의 조직으로서 개인의 반응양태의 선행경향이라고 하였고, Kirscht는 태도란 신념의 집합으로서 항상 평가적 측

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지연옥,1988). 즉 좋다·나쁘다, 또는 긍정적이다·부정적이다란 용어로 사정될 수 있다. 이러한 태도가 사회심리학적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행위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Kealman은 태도를 행위의 결정인자이며 구성요소, 그리고 결과로서 파악하였고, Fishbein은 태도의 적절한 측정은 행위와 강한 관련을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Rash와 Pigg, Jr.는 바람직한 건강행위는 충분히 행위지시를 할만큼 강한 태도의 발전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지연옥,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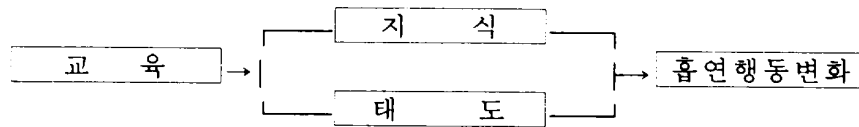
이러한 지식 및 태도와 흡연행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이영숙(1982)은 고등학생의 경우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흡연군의 지식도보다 비흡연군의 지식도가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경희(1979)의 연구에서도 흡연과 폐암과의 관계 및 담배의 tar물질 유해성, 흡연과 피로회복과의 무관함에 대하여 옳게 답한 학생이 흡연학생군에 비해 비흡연학생군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성년 흡연, 여성흡연 등에 대하여 흡연군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비흡연군은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이영숙,1982; 심은희,1988). 이는 흡연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흡연경험과 관련성이 있는 요인으로 보고한 지인순(1989)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지연옥(1988)은 금연을 위한 교육방법별 접근이 흡연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교육→지식→건강신념→태도→흡연행동변화'의 모형을 개발하여, 흡연교육실시 전후의 흡연량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지식과 태도의 변화가 흡연행동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심영숙(1987)의 연구에서도 보면 금연교육을 통한 지식, 태도 및 행동의 변화에서 금연지식 교육 후에 흡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 태도 모두 흡연행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의 개념들을 구성해보고자 한다. 즉 지식-태도-행위모델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실업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흡연폐해에 대한 지식수준 변화와 흡연행위에 대한 태도 변화를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흡연행동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표 II -1 > 흡연행동 변화를 위한 연구의 개념들



* 자료 1 : 지연옥(1988)의 “금연을 위한 교육방법별 접근이 흡연행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임.

Ⅲ.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금연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 흡연행위의 변화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밝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흡연행동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

2)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흡연폐해에 대한 지식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

3)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영가설을 설정하였다.

1) 일정기간 조직적인 금연교육을 받은 교육집단의 흡연량과 비교집단의 흡연량 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2) 일정기간 조직적인 금연교육을 받은 교육집단의 흡연폐해에 대한 지식도와 비교집단의 지식도 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3) 일정기간 조직적인 금연교육을 받은 교육집단의 흡연행위에 대한 태도와 비교집단의 태도 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IV. 연구방법 및 절차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수행에 따른 연구대상, 연구절차, 연구방법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제주시내 모 실업계 남자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 재학중인 흡연학생들 중 자발적으로 신청한 학생 50명을 교육집단과 비교집단으로 25명씩 배정하였다.

교육집단은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교육이 실제로 적용되는 집단으로 매주 2회 수요일과 금요일 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하여 약 110분간씩 7회에 걸쳐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에 비해서 비교집단은 교육집단에 대한 비교집단으로서 아무런 교육프로그램도 적용하지 않았으며 사전-사후검사만 실시하였다.

2. 연구절차

1) 연구기간

금연교육 프로그램은 1995년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의 기간동안,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하여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인 1995년 10월 28일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사는 프로그램 종료 후인 1995년 11월 24일에 실시하였다.



2) 금연교육 프로그램 내용

본 프로그램의 내용은 인지적 접근방법과 행동주의적 기법에 기초하여 본 연구자가 구성한 것이다.

< 표IV-1 > 금연교육 프로그램 내용

회기	일시	단계명	주제	활동목표
1회	11. 1	도입단계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소개	본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한 이해 집단원들간의 이해 및 신뢰감 형성
2회	11. 3	금연동기형성	교육용VTR 상영 및 흡연경험 나누기	흡연의 악영향에 대한 이해 자신의 흡연행위에 대한 이해 및 자기개방
3회	11. 8	및 결단단계	흡연폐해에 대한 강의와 금연계약 및 공언	흡연이 인체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금연계약 및 공언을 통한 금연결단
4회	11.10	금연행동	흡연충동에 대한 대처방안	자신의 흡연충동 유발상황에 대한 이해 및 대처방안에 대한 학습
5회	11.15	강화단계	금단증상에 대한 대처방안	금단증상에 대한 이해 및 대처방안 에 대한 학습
6회	11.17	재결심 및	역할극	역할극을 통한 자신의 흡연행동에 대한 평가 및 금연에 대한 재결심
7회	11.22	종결단계	제주마무리중 및 평가단계	교육내용에 대한 재검토 및 평가 자신에 대한 반성 및 미래계획을 통한 금연의지 강화

3. 연구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흡연행동과 흡연의 폐해에 대한 지식정도, 흡연행위에 대한 태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이 설문지는

지연옥(1988)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여기에서 흡연행동이란 1일 평균흡연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담배의 개피수로 측정하도록 하였으며, 흡연행동이 변화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금연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허위기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흡연행동 관찰기록지를 배부하여 작성토록 한 다음 흡연행동 변화를 일주일 단위로 검토하였다.

흡연폐해에 대한 지식정도란 담배의 유해성분과 흡연으로 유발되는 질병 등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지식의 측정을 위한 문항은 총 18문항으로 쉬운 문항부터 어려운 문항까지 고루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선택형 9문항과 진위형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1문항에 2점씩 계산해서 총 36점이 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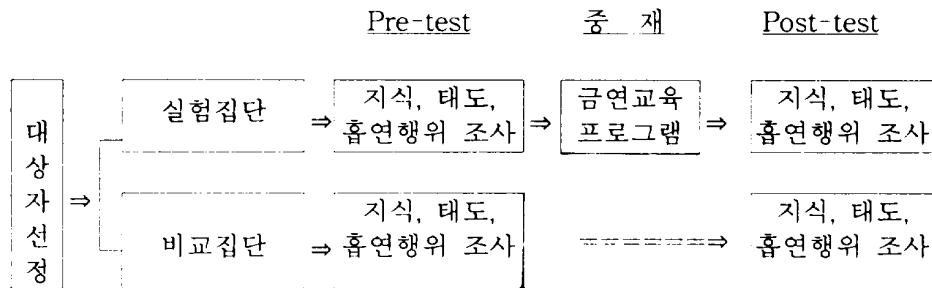
흡연행위에 대한 태도란 흡연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지 또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태도 측정을 위한 문항은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앞의 4문항은 흡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뒤의 4문항은 흡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흡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의 문항은 '매우 그렇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의 4점으로 계산하고, 흡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의 문항은 '매우 그렇다'의 4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가장 높은 점수가 총점 32점이고, 가장 낮은 점수는 8점이 된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행위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은 본 연구자가 구성한 금연교육 프로그램이고, 종속변인은 흡연행위와 흡연폐해에 대한 지식 및 흡연행위에 대한 태도 점수이다.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사전-사후검사 실험설계(pre-post test true experimental design)로서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표 VI-2 > 사전-사후검사 실험설계



* 자료 2 : 지연옥(1988)의 “금연을 위한 교육방법별 접근이 흡연행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발췌한 것임.

3) 자료처리

자료는 채점한 다음 SPSS/PC+ 전산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호화(coding), 전산처리, 통계적 해석 등의 순서로 처리하였다.

먼저 교육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동질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전검사에 대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집단 각각의 사전-사후검사 비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검사 비교를 위한 t 검증을 실시하였고, $P < .05$, $P < .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V. 연구결과 및 해석

여기에서는 먼저 사전·사후검사 결과를 살펴본 다음,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영가설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1. 연구결과

본 연구의 가설은 금연교육 프로그램이 실업계 남자고교생의 흡연행위 및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려는 것으로서, 다음은 가설에 따라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한 것이다.

1) 교육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검사 비교

교육집단과 비교집단간의 실험전 흡연행위와 지식수준, 태도수준의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두집단간 평균과 표준편차 및 t 검증한 결과는 < 표V-1 >과 같다.

< 표V-1 > 교육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검사 비교

검사통계치 영역	교육 집단		비교 집단		t
	\bar{X}	SD	\bar{X}	SD	
흡연량	10.80	4.49	10.32	4.51	0.35
지식점수	18.96	4.62	17.36	5.85	1.30
태도점수	17.96	4.76	16.56	3.85	1.18

* $P < .05$ ** $P < .01$


< 표V-1 >에서와 같이 교육집단과 비교집단간의 사전검사 결과 흡연량은 두집단 모두 평균 약 10개피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흡연폐해에 대한 지식점수와 흡연행위에 대한 태도점수를 비교해 보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두 집단은 동질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비교집단과 교육집단의 사전-사후검사 비교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 후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교집단의 사전-사후검사, 교육집단의 사전-사후검사를 *t*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비교집단의 사전-사후검사 비교

비교집단의 사전-사후검사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 결과는 < 표V-2 >와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 표V-2 > 비교집단의 사전-사후검사 비교

(N=25)					
영역	사 전 검 사		사 후 검 사		<i>t</i>
	\bar{X}	<i>SD</i>	\bar{X}	<i>SD</i>	
흡 연 량	10.32	4.51	10.72	4.72	-0.28
지식점수	17.36	5.85	17.04	4.90	0.23
태도점수	16.56	3.85	15.44	34.47	1.29

* *P* < .05 ** *P* < .01

비교집단의 사전-사후검사 결과는 < 표V-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흡연량과 흡연폐해에 대한 지식점수, 흡연행위에 대한 태도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교집단은 사전과 사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② 교육집단의 사전-사후검사 비교

금연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를 비교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교육집단의 사전-사후검사를 비교검정한 결과는 < 표V-3 >과 같다.

< 표V-3 > 교육집단의 사전-사후검사 비교

(N=25)

검사통계치 영역	사 전 검 사		사 후 검 사		t
	\bar{X}	SD	\bar{X}	SD	
흡연량	10.80	4.49	4.44	3.48	5.54**
지식점수	18.96	4.62	24.80	4.28	-6.01**
태도점수	17.96	4.76	22.60	5.43	-3.29**

* $P < .05$ ** $P < .01$

교육집단의 사전-사후검사 결과 < 표V-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흡연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t=5.54, P<.01$), 지식($t=-6.01, P<.01$) 과 태도측면($t=-3.29, P<.01$)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육후 흡연량은 교육전에 비해서 평균 약 6개피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금연교육이 흡연량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금연교육은 흡연폐해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고, 흡연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부정적인 태도로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육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검사 비교

교육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육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검사를 비교검정한 결과는 < 표V-4 > 와 같다.

< 표V-4 > 교육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검사 비교

(N=25)

영역	교육 집단		비교 집단		t
	\bar{X}	SD	\bar{X}	SD	
흡연량	4.44	3.48	10.72	4.72	-5.67**
지식점수	24.80	4.28	17.04	4.90	5.67**
태도점수	22.60	5.43	15.44	4.47	5.22**

* $P < .05$ ** $P < .01$

교육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검사를 비교해보면 < 표V-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흡연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t=-5.67, P<.01$), 지식($t=5.67, P<.01$)과 태도측면($t=5.22, P<.01$)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교육집단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비교집단에 비해 흡연량과 흡연폐해에 대한 지식 및 흡연행위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 표V-5 >와 같이 교육집단과 비교집단 간 금연이행자수를 비교해 본 결과 교육집단은 8명이, 비교집단은 1명이 금연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금연교육 프로그램이 흡연행동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V-5 > 사후 금연이행자수 비교

검사통계치 집 단 별	Total	금연이행자수
교육 집단	25	8
비교 집단	25	1

2. 결과의 해석

위의 분석결과, < 표V-3 > < 표V-4 >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집단의 사전-사후검사 비교와 교육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검사 비교에서 모두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금연교육 프로그램은 흡연 행동과 흡연폐해에 대한 지식 및 흡연행위에 대한 태도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된 영가설을 검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검사 결과

흡연량과 흡연폐해에 대한 지식, 흡연행위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두 집단은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일정기간 조직적인 금연교육을 받은 교육집단의 흡연량과 비교집단의 흡연량 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가설(1)에 대한 검증

< 표V-1 >에서 보면, 사전에는 교육집단과 비교집단의 하루 흡연량 평균은 교육집단이 10.80, 비교집단이 10.32로 두 집단 모두 하루에 약 10개피 정도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 표V-4 >와 같이 사후에는 교육집단의 흡연량이 평균 4.44인데 비해서 비교집단의 흡연량은 평균 10.72로 약 6개피 정도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t=-5.67$, $P<.01$), 가설(1)은 기각되었다.

또한 < 표V-2 > < 표V-3 >에서 보면 비교집단의 사전과 사후의 흡연량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에, 교육집단의 흡연량 평균은 사전이 10.80, 사후는 4.44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5.54$, $P<.01$).

< 표V-5 >에서도 보면, 교육집단은 교육을 받은 후 현재 금연하고 있다는 금연이행자 수가 8명인데 비해서 비교집단의 금연이행자 수는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볼 때 금연교육 프로그램은 실업계 고교생의 흡연량 감소와 금연이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흡연행동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일정기간 조직적인 금연교육을 받은 교육집단의 흡연폐해에 대한 지식도와 비교집단의 지식도 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가설(2)에 대한 검증

마찬가지로 < 표V-1 >에서 보면, 사전에는 지식점수의 평균이 교육집단 18.96, 비교집단이 17.3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 표V-4 >와 같이 사후검사에서는 교육집단의 지식점수 평균이 24.80, 비교집단이 17.04로 약 7점정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t=5.67, P<.01$), 가설(2)는 기각되었다.

또한 < 표V-2 > < 표V-3 >에서 보면 비교집단의 사전과 사후에서는 흡연폐해에 대한 지식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교육집단의 지식점수는 교육을 받은 후 평균 약 5점정도 더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6.01, P<.01$).

따라서 금연교육 프로그램은 실업계 고교생의 흡연폐해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일정기간 조직적인 금연교육을 받은 교육집단의 흡연행위에 대한 태도와 비교집단의 태도 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가설(3)에 대한 검증

< 표V-1 >에서 보면, 사전에는 흡연행위에 대한 태도점수 평균이 교육집단의 경우에는 17.96, 비교집단의 경우에는 16.5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 표V-4 >에서 보면, 사후의 태도점수 평균이 교육집단은 22.60인데 비해서 비교집단은 15.44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5.22, P<0.01$). 따라서 가설(3)은 기각되었다.

또한 < 표V-2 > < 표V-3 >에서 볼 수 있듯이 비교집단의 사전-사후검사 비교결과 흡연행위에 대한 태도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교육집단의 태도점수는 사전과 사후검사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t=-3.29, P<0.01$). 즉 사전 태도점수에 비해서 사후 태도점수는 평균 약 4점정도 더 높아졌으며 교육을 받은 후 교육전 보다 흡연행위에 대해서 훨씬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연교육 프로그램은 실업계 고교생의 흡연행위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VI.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일정기간 동안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실업계 고교생의 흡연행동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흡연행동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

2)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흡연폐해에 대한 지식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

3)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

이상과 같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영가설을 설정하였다.

1) 일정기간 조직적인 금연교육을 받은 교육집단의 흡연량과 비교집단의 흡연량 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2) 일정기간 조직적인 금연교육을 받은 교육집단의 흡연폐해에 대한 지식도와 비교집단의 지식도 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3) 일정기간 조직적인 금연교육을 받은 교육집단의 흡연행위에 대한 태도와 비교집단의 태도 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자발적으로 참

여한 제주시내 모 실업계 남자고교생 1,2학년 학생 50명 중 교육집단 25명, 비교집단 25명을 무선배정하여, 교육집단은 매주 2회 110분씩 총 7회에 걸쳐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비교집단은 사전-사후검사에만 참여하였다.

측정도구는 흡연행위와 흡연폐해에 대한 지식도, 흡연행위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로서, 지연옥(1988)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것을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사전-사후검사는 SPSS/PC+ 전산처리하여 교육집단과 비교집단간 사전검사, 교육집단과 비교집단내 사전-사후검사, 교육집단과 비교집단간 사후검사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 검증을 하였는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검사에서는 하루 흡연량 평균은 교육집단이 10.80, 비교집단이 10.32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사후검사에서는 교육집단의 하루 흡연량이 평균 4.44, 비교집단이 10.72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t=-5.67, P<.01$), 금연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 비교집단의 금연이행자 수는 1명인데 비해서 교육집단의 금연이행자 수는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검사에서는 흡연폐해에 대한 지식점수 평균이 교육집단은 18.96, 비교집단이 17.36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사후검사에서는 교육집단의 지식점수 평균이 24.80, 비교집단이 17.04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5.67, P<.01$).

셋째, 교육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검사에서는 흡연행위에 대한 태도점수 평균이 교육집단은 17.96, 비교집단이 16.56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사후검사에서는 교육집단의 지식점수 평균이

22.60, 비교집단이 15.44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5.22, P<.01$).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흡연행동 변화와 흡연폐해에 대한 지식 및 흡연행위에 대한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결 론

위의 결과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일정기간 동안의 금연교육 프로그램 실시는 실업계 고교생의 흡연량 감소와 금연이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연교육 프로그램은 실업계 남자고교생의 흡연행동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2) 일정기간 금연교육을 실시하면 실업계 고교생의 흡연폐해에 대한 지식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3) 일정기간 금연교육을 실시한 후 실업계 고교생의 흡연행위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금연교육 프로그램은 흡연행위에 대한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금연교육은 실업계 고교생의 흡연행위와 흡연폐해에 대한 지식, 흡연행위에 대한 태도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먼저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금연하거나 흡연량을 줄여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이를 직접 실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금연교육 프로그램이 흡연행동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학교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꾸준히 실행한다면 청소년의 흡연량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또한 한 나라의 청소년 건강은 곧 미래의 국력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효율적인 금연교육 실시는 앞으로 우리사회 전체의 건강증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흡연행위에 대해서 용납하고 수용하는 사회풍토를 변화시키는데도 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제 언

본 연구의 과정 및 결과에 비추어 몇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흡연고교생들 중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금연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어느정도 금연하고 싶어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금연에 대한 동기가 부족한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한다면, 보다 청소년의 흡연문제를 개선하는데 효율적일 것이다.

2) 본 연구는 추후검사를 통해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본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며, 변화되어진 흡연행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3) 본 연구에서는 실업계 남자고교생을 실시대상으로 했지만, 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 외에도 중학생이나 인문계 고교생, 여학생, 근로청소년 등 보다 광범위한 청소년 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강성만 외(1995), 「위기에 처한 아이들」, 예영커뮤니케이션 편집부.
- 고막래(1990), “남녀 고등학생의 흡연에 관한 지식, 인식 및 행동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고정자 외(1992), “청소년의 흡연행동과 비행과의 관계분석”, 대한가정학회지, Vol.30 No.1-2.
- 고홍경(1990), “서울 시내 일부 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보건교육학회지, 7(1).
- 김경희(1979), “우리나라 남자대학생들의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소야자(1994), “청소년 약물남용의 징후 및 증상들”, 청소년 약물상담교실자료집, 서울YMCA 동대문지회 청소년 약물상담실.
- 김택민(1988), “고교생들에 대한 금연교육 효과”,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김형태(1990), 「학교상담의 이론과 실제」, 한남대 출판부.
- 김호권 외(1983), 「현대교육평가론」, 서울:교육출판사.
- 김화중(1987), 「지역사회 간호학」, 서울:수문사.
- 민병근 외(1976) “한국청소년의 꺾연양상”, 중앙의대 신경정신과학 교실.
- 박명윤(1992), “청소년 흡연실태와 대책”, 한국학교보건학회지, Vol.5 No.2.
- _____ (1993), “근로청소년들의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청소년 연구 제12호, Vol.4 No.1.
- 박성수 외(1993), 「청소년흡연행동:습관형성과정·대책」, 청소년대화의 광장.
- 박종태(1994), “고등학교 학생의 흡연실태분석”,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

교 행정대학원.

- 배오진(1995), “전남지역 남자고등학생의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 일 외(1988), “전국남자 중·고등학교 학생의 흡연실태”, 한국역학회지, 10(2).
- 심영숙(1987), “국군병사들의 금연교육에 의한 지식, 태도 및 행동의 변화”,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 심영애(1989), “서울시내 남녀 고교생의 흡연에 관한 태도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 심은희(1988), “서울특별시 여고생의 흡연실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이계은(1992), “여고생의 흡연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흡연지식, 흡연태도, 건강행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수일(1989), 「약물남용」, 인간과학 제5권 1호.
- 이승환(1988), “서울시내 남자고등학생들의 흡연행태 및 지식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영숙(1982), “서울시내 일부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이유림(1993), “약물남용과 청소년 자아정체감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조웅(1986), “청소년의 흡연충동 정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혜경(1990), “도시청소년들의 흡연동태에 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이희웅(1986), “청소년 흡연행동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주왕기(1989), 「약물남용」, 서울:세계사.

_____ (1992), “청소년 유해물품의 실태와 개선대책”,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대책에 관한 연구」, 체육청소년부.

지연옥(1988), “금연을 위한 교육방법별 접근이 흡연행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인순(1989), “중학생의 흡연수용태도 결정요인”,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최선화(1991),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집단사회사업적 개입모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최윤진 외(1993), 「청소년 문제론」, 서울:서원.

최종태(1992), “니코틴 의존흡연자에서 금연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한승희 외(1993), 「부모가 알아야할 청소년기」, 서울:서원.

허철수(1993),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개선방안”, 제주도청소년육성시책 지역토론회 자료집.

황경열(1990), “금연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지도상담」 14권, 계명대 학생생활연구소.

Bonaguro, J.A. & Bonaguro, E.W.(1987), Self-concept stress symptomatology and tobacco use, *Journal of School Health*, 57(2), 56-58.

- Covey, L.S., & Tam, D.(1990), Depressive mood the single-parent home and adolescent cigarette smoking, *AJPH*, 80(11), 1330-1333.
- Davison, G.C., & Neak, J.M.(1986), *Abnormal Psychology : An experimental-clinical approach*(4thed), New York:John Wiley & Sons.
- Evans(1983), Deterring smoking in adolescents : Evolution of a research program in applied social psychology,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Psychology*, 32.1, 71-83.
- Ganesan, V.(1984), Smoking extinction smoke-them-of pleasure (STOP) technique, *Psychological Report*, 54, 216.
- Geisinger, D.L.(1976), A broad-range program to eliminate cigarette smoking, In krumboltz, J.D., & Thoresen, C.E., (eds), *Counseling methods*, New York : Holts, Rimehart and Winston.
- Glasgow, R.E., & Lichtenstein, E.(1987), Long-term effects of behavioral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s, *Behavior Therapy*, 18, 287-324.
- Haire-Joshu, D., Morgan, G., & Fisher, E.B.Jr.(1991), Determinants of cigarette smoking, *Clin Chest Med*, 12(4), 711-725.
- Health and Public Policy Committee(1986), Methods for stopping cigarette smoking, *Ann Intern Med* 105(2): 281-191, 1986.
- Horn, P.(1959), Cigarette smoking among high school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49, 1497-1511.
- Kendall, P.C., & Norton-Ford, J.D.(1982), *Clinical Psychology*, New York:John Wiley & Sons.

- Krohn, M.D., Naughton, M.J., Skinner, W.F., Becker, S.L., & Laner, R.M.,
Social disaffection, friendship patterns and adolescent
cigarette use: The Muscatine study, *Journal of School Health*,
56(4), 146-150.
- Lam W, Sze PC, Sacks Hs, Chalmers TC(1987), *Meta-analysis of
randomised controlled trials of nicotine chewing-gum*,
Lancet 4:27-29.
- Leventhal, H., & Cleary, P.(1980), The smoking problem, *Psychological
Bulletin*, 88, 370-405.
- Nolte, A.E., Smith, B.J. & O'Rourke(1983), The relative importance of
parental attitudes and behavior upon youth smoking
behavior, *Journal of School Health*, 53(4), 264-271
- Pulkkinen(1983), The on set and continuity of smoking and drinking
in adolescence, *Acta Psychologica Fennica*, 9, 11-30.
- Schneider(1980), *Methods and Materials of Health Education*, Palo
Alto : Mayfield Publishing Company, 80-82.
- Spielberger, C.D., Jaobs, G.A., Crane, R.S. & Russell, S.F.(1983), On the
relation between family smoking, habits and the smoking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Psychology*, 32(1), 53-69.
- Tuakli, N., Smith, M.A., & Heaton, C.(1990), Smoking in Adolescence :
Methods for health education and smoking cessation, *The
Journal of Family practice*, 31(4), 369-374.
- Williams, A., Faunce(1984), School achievement, social status and
self-esteem,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

Winkelstein, M.L.(1992), Adolescent smoking : Influential factors, past preventive efforts, and future nursing implications,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7(2), 120-127.



< Abstract >

**The effects on the change of the smoking behavior
of the Anti-Smoking Education Program
-centring around the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Im, So-Youn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myoung-kyou

In spite of the harm of smoking, in recent days the number of younger-smoker is increased, and so younger's smoking becomes a serious social problem. Thus, an interest in the Anti-Smoking Education as a counterplan grow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effects of the Anti-Smoking Education Program(below ASEP), which is carried out in a vocational high school in cheju city, on the change of the smoking behavior, of knowledge on the harm of smoking, and of the attitude toward smoking.

The 50 students voluntarily took part in this study. They were randomly divided into two groups, one Education Group(25 students), the other Comparison Group(25 students). The Education Group received ASEP produced by the present researcher, 110 minutes each time, twice in a week, 7 times in all. The Comparison Group took part in pre-post test only.

The tools used for this study are a questionnaire that utilized to investigate the smoking behavior, the level of knowledge on the harm of

smoking, and the attitude toward smoking. This questionnaire had been developed by Jee, Yon-Ock(1988), and the present researcher adapted it for this study.

Analysis of data was done by use of the spss/pc+. The t-test was applied to the pre-test of the Education Group and the Comparison Group, the pre-post test of intra-two groups, the post-test between two group. As a result of t-test,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ducation Group and the Comparison Group($P<.01$) in all aspect of the smoking behavior, the level of knowledge on the harm of smoking, and the attitude toward smoking.

Following conclusions are derived from the results and discussions:

1) ASEP, which is carried out for fixed periods, efficiently reduced a quantity of cigarettes smoked per day and took effect on performance of the anti-smoking. So the Anti-Smoking Education Program produced much more positive effect on the change of the smoking behavior of the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2) ASEP takes some positive effects on the improvement of the level of knowledge on the harm of smoking of the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3) ASEP also has changed the attitude toward smoking into the negative one. So ASEP are some positive effects at changing of the attitude on the smoking behavior.

As a result, ASEP is good at changing on the somking behavior positively. Therefore, the excution of the systematic Anti-Smoking Education Program will be helpful to improve pshysical and mental health of the younger.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November, 1995.

< 부 록 I >

--- 금연교육 프로그램 활동 내용 ---

제 1 회 :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소개

* 오리엔테이션 --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각 개인의 흡연행동 개선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각자는 시종 ① 자기이해 ② 자기개방 ③ 적극적인 경청에 힘쓸 것과 이와 같은 목적달성이 궁극에는 흡연행동 교정 및 자신의 금연행동 발달에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1. 목 적

자신의 특징과 현재의 느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집단원 간의 이해 및 신뢰감 형성에 도움을 준다.

2. 강 의

처음 만난 집단원들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하고 긴장감이 생기기 쉽다. 각자의 평소 별명 소개를 포함한 자신들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특징 소개와 참여동기 및 현재의 느낌을 소개함으로써 상호간에 친근감을 느낄 수 있고, 서로간의 이해는 물론 자기개방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한다.

3. 활 동

나누어준 종이에 자신의 성명과 별명, 가족사항, 참여동기, 바라는 바, 현재의 느낌 등을 기록하여 집단원들 앞에서 발표한다.

4. 정리 및 평가

활동과정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하고, 학습과정을 요약한 후 다음 회기를 예고한다. 흡연행동 관찰기록지를 나누어주고 매일 매일 기록하고 일주일 후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 2 회 : 교육VTR 상영과 흡연경험 나누기

* VTR 내용 -- 본 비디오 테이프는 KBS 추적 60분의 '금연 그렇게 힘들 십니까'를 녹화한 것으로 니코틴 투여를 통한 생체실험 장면, 담배 속의 유해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장면, 부류연의 유해성에 대한 실험장면, 흡연으로 인해 유발되는 신체질병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1. 목 적

담배 속의 유해성분 및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여러가지 악영향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신의 흡연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표함으로써 자신의 흡연행동을 파악하도록 한다.



2. 강 의

본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진지하고 조용하게 시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VTR시청이 끝난 후 실행할 집단활동 내용을 예고하였다.

3. 활 동

나누어준 종이에 1) 최초 흡연경험을 한 시기와 동기, 2) 흡연정도, 3) 흡연이 내게 주는 이로움과 해로움, 4) 금연을 결심하게 된 동기, 5) VTR시

청 소감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쓴 다음, 조별로 나누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눈다.

4. 정리 및 평가

이번 회기과정을 요약한 후 다음 회기를 예고한다.

제 3 회 : 흡연폐해에 대한 강의와 금연계약 및 공언

1. 목 적

지난 회기에서 시청했던 VTR내용을 회상하면서 흡연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질병을 유발시키는 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고, 금연동기를 갖도록 한다. 또한 금연계약 및 공언을 통해서 금연 이행에 도움을 준다.

2. 강 의

담배의 여러 유해성분과 이 성분이 인간의 신체와 정신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특히 흡연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병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다. 또한 강의 후에 흡연폐해에 대해서 조별 집단토의를 하도록 하고, 발표자를 선출하여 토의 내용을 발표토록 한다. 조별 발표가 끝난 후에는 모든 구성원들이 금연계약서를 작성하고 큰 소리로 읽도록 한 후 꼭 지킬 것을 당부한다.

3. 활 동

나누어준 종이에 1) 강의를 듣고 난 소감, 2) 흡연후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3) 흡연시 나타나는 해독 5가지와 금연시 얻게 되는 이득 5가지 등의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고 조별로 토의한다.

토의가 끝난 후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각자가 금연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큰 소리로 여러번 읽는다.

4. 정리 및 평가

이번 회기내용 및 과정을 요약하고 집단 구성원들의 참여태도에 대하여 평가한 후, 다음 회기를 예고한다. 1회기에 과제로 주었던 흡연행동 관찰기록지를 회수하고 다시 관찰기록지를 나누어준 다음에 일주일 후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 4 회 : 흡연충동에 대한 대처방안

1. 목 적

각자 스스로 어떤 상황에서 흡연충동을 느끼는지 대해서 인식하고, 흡연충동에 대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탐색한다.

2. 강 의

흡연충동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법들을 제시한다. 또한 강의 후에 조별로 집단토의 하도록 하고, 발표자를 선출하여 토의내용을 발표토록 한다.

3. 활 동

조별로 1) 평소 본인이 흡연충동을 느끼는 상황, 2) 흡연충동을 느낄때 자신의 대처방법은 어떤지에 대해서 토의하고, 발표자는 앞에 나와서 발표한다. 강의와 집단토의 과정을 통해서 각자 자신에게 효율적인 대처방안이라고 생각되는 방법들을 목록화하여 정리한다.

4. 정리 및 평가

이번 회기내용 및 과정을 요약하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눈을 감고 마음을 정리하도록 한 후 본인들 스스로가 금연계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성해보도록 하고, 다음 회기를 예고하면서 정리한다.

제 5 회 : 금단증상에 대한 대처방안

1. 목 적

금단증상에 대해 이해하고, 금연시 각자에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것인지를 파악하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탐색한다.

2. 강 의

금단증상이란 무엇이고, 금연시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대처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강의 후에는 조별로 토의하도록 하고, 발표자를 선출하여 토의내용을 발표토록 한다.

3. 활 동

조별로 1) 금연 시도 횟수와 금연결심 동기, 2) 여러 금단증상 중 본인이 경험한 증상, 3) 금단증상 경험시 본인이 사용한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조별로 토의하고 발표자는 앞에 나와서 발표한다. 각자에게 효율적인 대처방안이라고 생각되는 방법들을 목록화하여 정리한다.

4. 정리 및 평가

이번 회기내용을 및 과정을 정리하고 평가한다. 지난 주에 나누어 준 흡연행동 관찰기록지를 회수하고, 새기록지를 나누어준 다음 매일매일 기록하여 일주일 후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 6 회 : 역할극

1. 목 적

자신의 마음을 깊게 들여다보고 흡연하는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하여,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 및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강 의

역할극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구성원들 모두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역할극에 참여하도록 권유한다.

3. 활 동

구성원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도입활동으로서 빈자리 차지하기, 찌게박수, 소림사주방장 등 몇가지 게임을 한다. 모두 눈을 감고 담배를 피우는 행동에 대해서 걱정하고 조심스러워 하며, 처벌을 두려워 하는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한 후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최근 경험을 회상토록 한다.

의자를 배치하여 재판장면 무대를 설정하고, 자원자나 구성원들의 의견을 통해서 추천을 받은 후 역할을 선정한다. 주인공의 경우 흡연행동과 관련해서 죄의식을 느꼈던 경험을 말하도록 하고 이를 내용으로 하여 재판을 실시한다.

* 역 할 선 정

- 대표검사 1인과 그외 검사단 2인 : 주인공의 유죄를 입증하는 역할
- 대표변호사 1인과 그외 변호단 2인 : 주인공의 무죄를 입증하는 역할

- 피고 1인 : 최근 흡연행동 경험에 대해서 심판받는 역할
- 재판관 3인 : 피고에 대해서 판정을 내리고 벌칙을 설정하는 역할
- 경찰 2인 : 법정치안, 질서유지, 피의자 고문 등의 역할

*** 재판과정**

- 재판관 등장과 기립착석
- 재판관 재판시작 선언
- 검사의 죄목낭독과 벌칙구형
- 변호사의 변론과 벌칙구형
- 피고의 자기발언
- 재판관 심의와 벌칙구형

4. 정리 및 평가

역할극이 끝난 후 주인공을 비롯하여 참여 구성원들의 느낌과 소감을 말하도록 한다. 이번 회기 과정을 평가한 후, 다음 회기를 예고하면서 정리한다. 흡연관찰 기록지를 회수한다.

제 7 회 : 마무리 및 평가

1. 목적

그동안 회기에 대해서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흡연행동에 대해서도 평가 및 반성하며, 미래계획을 짜보면서 금연에 대한 재결심을 하도록 한다.

2. 강의

그동안의 프로그램을 쪽 정리하고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신의 흡연행동이 얼마나 변화했는지에 대한 평가 및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또한 미래

계획표를 쓰도록 하고 각자의 미래다짐을 발표하도록 한다.

3. 활 동

눈을 감고 그동안 회기들을 쪽 회상하면서 변화된 자기모습이나 느낌을 들여다본다. 눈을 뜨고나서 나누어준 종이에 1) 현재의 느낌 및 반성, 3) 나의 다짐, 4) 프로그램 참여소감 등을 기입하고 발표한다.

4. 정리 및 평가

그동안의 프로그램 과정 및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 및 평가하고, 다시금 금연계약을 상기시키고 구성원들 모두 스스로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면서 본 프로그램을 마무리한다.



< 부 록 Ⅱ >

-- 사전 검사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

이 설문지는 청소년 여러분이 흡연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알아보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하는 이 설문지는 흡연문제 해결을 위한 본 연구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오니, 부디 각 문항마다 솔직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에는 정·오답이 없으며, 여러분이 답한 내용은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연구 이외의 용도로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수고 부탁드립니다.

1995. 10.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연구실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다음 문항들을 읽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1. 본인의 이름은 ? _____
2. 본인의 학년은 ?
1) 고 1 2) 고 2 3) 고 3
3. 처음으로 담배를 피운 때는 ? _____

10. 담배의 성분 중 폐암을 위시한 각종암을 일으키는 물질은 무엇입니까 ?
 1) 니코틴 2) 타 르 3) 일산화탄소
 4) 청 산 5) 모르겠다
11. 담배를 피우면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수명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1) 더 오래산다 2) 변함없다
 3) 더 일찍 죽는다 4) 모르겠다
12. 담배를 피우면 집중력 및 두뇌활동이 어떻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
 1) 좋아진다 2) 변함없다
 3) 저하된다. 4) 모르겠다
13. 주류연과 부류연 중 어느 것이 더 유해합니까 ?
 1) 주류연 2) 부류연 3) 모르겠다
14. 임신한 여성이 담배를 피우면 어떤 영향이 미칩니까 ?
 1) 저체중아 2) 선천성 기형 3) 자연유산
 4) 이상모두 5) 별문제 없다 6) 모르겠다
15. 옆에 있는 사람이 흡연을 할 경우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
 1) 매우 해롭다 2) 약간 해롭다
 3) 별로 해롭지 않다 4) 전혀 해롭지 않다
16. 다음중 흡연과 관계있다고 생각되는 것에는 O 표를 하고 흡연과 관계 없다고 생각되는 것에는 X 표를 하십시오
 1) 폐 암 _____ 2) 만성기관지염 _____ 3) 조기노화 _____
 4) 구 강 암 _____ 5) 위 궤 양 _____ 6) 저산소증 _____
 7) 동맥경화 _____ 8) 소 화 불 량 _____ 9) 잇몸질환 _____

• 다음은 흡연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매우 그렇다 약 가 약 가 매 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 | | | | | |
|--|-------|-------|-------|-------|
| 17. 흡연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하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18. 담배를 피우는 것은 성인남성
으로서 완숙한 이미지를 준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19. 어른들처럼 청소년들도 담배를
피울 수 있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20.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선 담배를
피우는 것이 좋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21. 나는 담배를 피우지만 형제나
주위 사람에게 권하고 싶지 않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22. 학교 교과과정에 흡연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담배의 유해성을
확실히 알려야한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23. 나는 담배를 끊을 생각이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24. 흡연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부 록 Ⅲ >

-- 사 후 검 사 설 문 지 --

안녕하십니까 ?

이 설문지는 청소년 여러분이 흡연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알아보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하는 이 설문지는 흡연문제 해결을 위한 본 연구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오니, 부디 각 문항마다 솔직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에는 정·오답이 없으며, 여러분이 답한 내용은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연구 이외의 용도로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수고 부탁드립니다.

1995. 11.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연구실

• 다음 문항들을 읽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1. 본인의 이름은 ? _____

2. 본인의 학년은 ?

1) 고 1 2) 고 2 3) 고 3

3. 본인은 현재 담배를 끊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18. 어른들처럼 청소년들도 담배를
피울 수 있다. _____
19.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선 담배를
피우는 것이 좋다 _____
20. 나는 담배를 피우지만 형제나
주위 사람에게 권하고 싶지 않다. _____
21. 학교 교과과정에 흡연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담배의 유해성을
확실히 알려야한다. _____
22. 나는 담배를 끊을 생각이다. _____
23. 흡연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_____

< 부 록 IV >

학교명 : _____ 성명 : _____

흡연행동 일일기록부					
중등 일시	중등 정도	중등을 느낀 장 소	중 등 유 발 상 황	대 처 행 등	흡연유무

